www.krei.re.kr

제20호 | 2024. 4. 17.

KREI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플러스

유찬희 | 연구위원
chrhew@krei.re.kr

임준혁 | 전문연구원
jhbee@krei.re.kr

농가경제조사 개선을 위한 과제

KEY MESSAGE

☑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 확대, 1인 농가 등 지표 별도 공표, 신규 조사 항목 추가 및 집계 방식 개선 등 검토 필요**

SUMMARY

- 농가경제조사는 5년 주기 표본 개편에 따른 일관성 저하, 표본 대표성 검토 필요, 공표 결과에 1인 농가 미포함 등의 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
- 표본 농가 확대 및 이에 필요한 조사 인력 증원 및 예산 확충, 1인 농가 경제지표 별도 공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 조사 항목 추가 및 집계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01 농가경제조사 개요와 의의

농가경제조사 개요 및 목적[1)]

|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 등에 활용

- 농가경제조사는 1962년 '통계법'에 따라 정부 공식통계(지정통계 제101042호)로 지정되었음. 1998년 7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음.
- 농가의 수입, 지출,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2)] 농업경영 개선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이나 각종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음. 특히 최근 농업경영비가 증가하고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정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 및 농가경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가경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5년마다 표본 교체,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경제 관련 사항과 농가 원부(農家 原簿)[3)]를 조사

- 1962~1998년 동안 표본을 7차례 개편하였음. 2003년 제8차 표본 개편 과정에서 조사표 및 지침을 개편하였고, 이후 네 차례(2008, 2013, 2018, 2023년) 표본이 개편되었음. 2018년 제11차 표본 개편 때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 생산비 조사 표본을 분리하였음.
- 농림어업총조사 농가를 모집단 삼아 농가경제조사 표본을 추출함.[4)] 이는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 대상에서 표본을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농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특·광역시(2018~2022년 120호) 및 1인 농가(2013년부터 100호) 표본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함.

1) 통계청(2022), 《2022 농가경제조사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농촌진흥청(2023), 《농산물소득자료집》에서도 주요 품목의 단위면적당 소득을 제시함. 그러나 "농업경영연구, 개별 농가 및 법인의 경영 상담·지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한 자료이므로 자료 이용에 유의"하라고 적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주의를 요하고 있음.
3) 원부는 "고쳐 만들거나 베끼기 전의 본디의 장부" 또는 경영 분야에서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모든 계정계좌를 설정하여 분개장에서 분개한 거래를 전부 기록하는 장부"를 뜻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sLink), 검색일: 2024. 4. 11.).
4) 외국인 가구, 비혈연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상시 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등은 제외함(통계청, 202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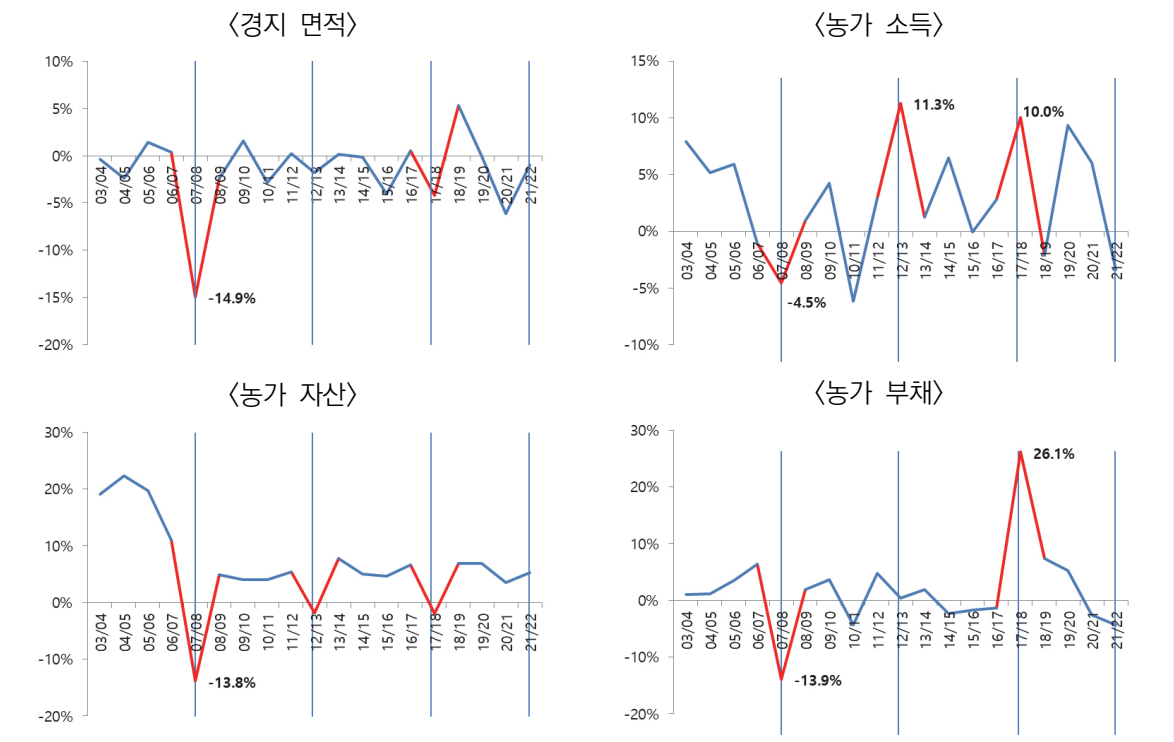
- 농가경제 관련 사항(가구원 현황, 가구 특성, 가축 사육 및 작물 재배 현황, 농작물 수입, 대·소동물 구입 및 판매, 농업 잡수입, 농업 외 수입, 농업 외 지출, 농업지출, 농업노동 투입, 가계지출)은 매달 조사함. 농가 원부(토지, 건물, 기계·기구·비품, 대식물, 무형자산, 미처분 농산물, 미사용 구입 자재, 부채, 금융 자산)는 연말 및 수시 조사를 실시함. 조사 담당자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 용도로 한정하여 전화 등으로 추가 조사를 하기도 함.
- 위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로써 농가경제조사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개진되어왔음.

02 농가경제조사 개선 과제 진단

| 5년 단위 표본 교체에 따른 농가경제 지표의 연속성 단절 문제

- 농가경제조사의 모집단인 농림어업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농가경제조사 표본을 모두 교체함. 이는 농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표본을 현행화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따라 표본 교체 전후로 농가경제 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농가경제 실태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됨〈그림 1〉. 일부 주요 농가경제 지표를 예로 들면, 표본 교체 시점 전후로 지표 값이 크게 변화하거나(〈그림 1〉의 숫자), 추세가 반전되는 현상(〈그림 1〉의 붉은 실선)을 확인할 수 있음.[5)]

〈그림 1〉 표본 교체에 따른 주요 농가경제 지표 등락 사례



주: 연도 간 주요 지표 증감률을 표시하였음. 수직성은 표본 교체가 이루어진 해를 뜻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5) 이는 표본 교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연도별 경제 상황이나 작황, 정책 변화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럼에도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큰 변화가 없어야 할 경지 면적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표본 교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

| 표본 대표성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농가경제조사 표본 규모는 개편 시기에 따라 2,600~3,200호임. 표본 중 1인 농가 100호를 제외한 2인 이상 농가를 지역, 영농 형태에 따라 배분함〈부표 1〉(통계청, 2022: 6).
- 지역 및 농가 특성에 따라 표본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농가 특성을 반영하는' 표본 수가 줄어들어 대표성이 낮아질 수 있음. 김관수 외(2015: 54)[6]는 "정책적으로 관심이 있는 농가는 최상층 농가와 최하층 농가이나 (중략) 표본 수가 매우 축소되고 중간층의 농가만 많이 분포"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음. 한석호 외(2020: 32)[7]는 "현재의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의 수(3,000농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표성은 존재하나, 지역(도별)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하였음.[8]
- 이와 함께 층화추출[9] 변수에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령을 층화 변수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농림어업총조사/농림어업조사와 농가경제조사 표본의 연령대별 비율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부표 2〉.

| '영농 형태'[10] 정의에 따른 농가 특성 반영 한계

- 현재 농가경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영농 형태' 기준은 농업 총수입 중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류를 따르고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르면 널리 퍼져있는 복합 영농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농업 총수입 중 논벼 수입이 100%인 농가와 논벼 수입이 51% 농가 모두 '논벼 농가'로 분류됨.

6) 김관수·홍기학·민선형(2015), 《『농가경제조사』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통계청.
7) 한석호·임대철·이동훈·정우림(2020), 《『농가경제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통계청.
8) 예를 들어 전북일보(2023. 6. 8.), "2022년도 전북 농업소득 42% 급락…원인은 오리무중(?)"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9) 5년 단위로 농가 광역조사구를 구축(농림어업총조사 → 국가기초구역(27,030개 조사구) → 광역조사구(26,797개 조사구))하고, 시도별 층별 조사구에서 영농 형태, 전겸업, 경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표본 틀을 마련함(통계청(2022), 《『농가경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10) 영농 형태는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 겸업의 9가지로 나누어짐. 이 중 2종 겸업을 제외한 영농 형태는 '농업 총수입 중 수입이 최대인 품목류'를 따름.

조사 결과 공표 시 1인 농가 미포함

-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농가는 전체 농가 중 20.0%에 이름.[11] 그럼에도 현재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1인 농가를 제외한 2인 농가의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음. 이는 1인 농가 조사를 2013년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통계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그럼에도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소득이 절반가량에 불과한 1인 농가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소득 수준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부도 1〉.

11) 농가경제조사에서는 각 표본 농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2018~2022년 1인 농가 수는 19만 5,076~22만 2,038호로 추정됨. 같은 기간 전체 농가 중 비율은 19.1~21.7%로 추정됨.

03 향후 과제

| 농가경제조사 정확도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표본 및 조사원 확대

- 농가경제조사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표본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음. 표본을 늘린다면 주요 정책 대상이 되는 농가 정보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별 농가경제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 과정에서 층화추출 방식을 개선하여 표본 배분을 고도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최근 40대 미만 농가 표본 수는 10호 내외여서 청년 농업인 실태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해당 집단 표본 수를 늘리거나, 청년 농업인 표본을 별도로 구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농가경제조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12)]
- 또한 표본 교체 시점에서 주요 지표가 갑작스럽게 변화하거나 추세가 반전된다면 그 원인을 진단·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영농 형태' 구분 기준 개선 검토

- 현재 '영농 형태' 구분 기준을 개선하여 복합 영농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수입 또는 재배 면적/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주요 품목/축종 1~3순위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복합 영농 실태 정보를 제공하면 주요 품목/축종 경영 실태와 수급 조절 관련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12) 실제로 농가경제조사 담당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농가 수는 2015년 6.3호(김관수 외, 2015: 28)에서 2019년 7.8호(통계청, 2022: 20)로 늘어났음. 이에 더해 농가경제조사 조사원이 실제 조사에 투입하는 시간은 515.6분/월/호로 통계 조사 평균치인 167.9분/월/호보다 길었음(통계청 농어업동향과(2018), "농가경제조사 효율화 방향", 《2018년 농림어업통계 업무 발전 토론회 자료집》: 110).

1인 농가 소득 반영 등 공표 방안 개선

- 전체 농가 중 20.0%를 차지하는 1인 농가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통계청은 2022년 표본 개편을 실시하면서 농가경제조사 표본을 3,300호(1인 농가 400호 포함)로 늘렸으므로[13] 향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존 2인 이상 공표 결과에 1인 농가를 합산하면 기존 통계와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2인 이상 농가경제 조사 결과를 기존대로 공표하되, 1인 농가 관련 지표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 및 집계 방식 개선

- 농가경제조사는 수요가 적거나 조사 부담이 큰 조사 항목을 간소화해 왔고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함. 그럼에도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항목을 새로이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예를 들어 농업 노동 투입 내역 일계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를 파악하도록 항목을 신설할 수 있음.[14]
- 농가별로 이전소득에 속하는 직불금 등 주요 정책 보조금 종류와 규모를 세분화하여 제시한다면 정책 효과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해당 항목은 이미 조사를 하고 있으나, 공표 과정에서 통합하여[15] 세부 정책별 효과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음.

13) 통계청(2022), 《2022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개편 결과》.
14) 유찬희(2021), "농가소득 통계의 허와 실, 그리고 제언", 《농촌사회》 31(2): 287- 299.
15) 농업 잡수입(부호 7) 안에는 가격보상금(부호 51: 농가에서 농업재해 관련 가입한 보험에서 받은 보상금), 피해보상금(부호 52: 작물, 축산, 과수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 직불금, 농업투자보조금, 농약·비료 등 농업 관련 보조금 등은 세분화하여 조사되고 있으나, 집계할 때 농업 공적 보조금(부호 31)으로 통합된 수치만 제공하고 있음(통계청(2022), 《2022 농가경제조사 지침서》).

부록 농가경제조사 표본 배분 관련 보충 자료

〈부표 1〉 2022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배분 현황

시도	합계	소계	2인 이상												1인 표본
			논벼		시설(밭)		노지(밭)		과수		축산		2종 겸업		
			1층	2층	1층	2층	1층	2층	1층	2층	1층	2층	1층	2층	
전체	3,000	2,900	267	329	152	98	333	418	197	165	176	149	313	303	100
광역	127	120	14	19	6	4	13	17	5	5	5	-	19	13	7
경기	339	330	32	34	15	15	28	50	8	18	22	20	40	48	9
강원	293	285	25	25	23	-	49	41	16	-	17	16	30	33	8
충북	294	286	22	30	23	-	36	41	23	19	18	15	28	31	8
충남	337	326	42	41	18	18	31	43	28	-	18	22	32	33	11
전북	336	325	37	50	13	12	35	48	17	16	21	16	29	31	11
전남	360	346	37	53	13	15	41	48	19	20	20	18	30	32	14
경북	384	370	32	39	20	16	40	43	38	32	23	22	31	34	14
경남	330	317	26	38	21	18	29	41	18	19	20	20	39	28	13
제주	200	195	-	-	-	-	31	36	25	36	12	-	35	20	5

자료: 통계청(2022), 《2022 농가경제조사 지침서》: 6.

〈부표 2〉 농가경제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연령대별 분포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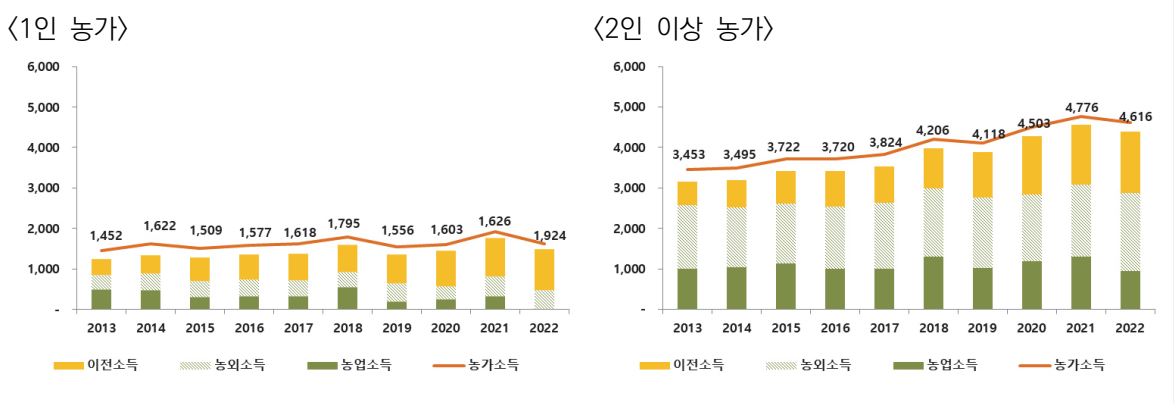
구분	연령대	2018	2019	2020	2021	2022
농가경제조사	40세 이하	4.0	3.3	3.2	2.3	1.6
	50~59세	15.5	13.8	12.1	10.1	9.4
	60~69세	36.5	35.7	35.0	35.5	33.3
	70세 이상	44.0	47.1	49.7	52.1	55.7
농림어업(총)조사	40세 이하	5.6	5.2	7.2	5.6	4.7
	50~59세	18.3	16.9	19.5	17.0	15.5
	60~69세	31.7	32.1	33.6	34.6	34.3
	70세 이상	44.3	45.8	39.7	42.7	4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농림어업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림어업총조사 이루어지는 해(2015년, 2020년)에는 해당 자료를 이용함.
2) 농업조사(2018~2019년)와 농가경제조사(2018~2022년)의 조사 모집단은 2015년 농업총조사 조사대상 농가임.
3) 농가경제조사의 연령별 농가 비중은 전국가중값을 이용하여 집계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참고하여 집필진 재구성.

〈부도 1〉 1인 및 2인 이상 농가의 농가소득 추이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감　　수 정학균 선임연구위원 061-820-2248 hak8247@krei.re.kr
내용문의 유찬희 연구위원 061-820-2022 chrhew@krei.re.kr

※ 「KREI 이슈+」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이슈+
제20호
농가경제조사 개선을 위한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4. 4.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I S S N 2983-34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